The Gospel of Mark

Sermon 54 – Sermon Notes Title: "Taxes to Caesar?" Scripture: Mark 12:13-17

Date preached: September 17th 2023

Scripture: Mark 12:13-17

13 Then they sent to Him some of the Pharisees and the Herodians, to catch Him in *His* words. 14 When they had come, they said to Him, "Teacher, we know that You are true, and care about no one; for You do not regard the person of men, but teach the way of God in truth. Is it lawful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15 Shall we pay, or shall we not pay?"

But He, knowing their hypocrisy, said to them, "Why do you test Me? Bring Me a denarius that I may see it." 16 So they brought it.

And He said to them, "Whose image and inscription is this?" They said to Him, "Caesar's."

17 And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Render 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And they marveled at Him.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take a moment to review what we looked at in our last study.

Last time we examined the parable that the Lord Jesus gave to the delegation of chief priests, scribes, and elders. They had come to Him in the temple in order to challenge His authority. In particular they wanted to know who gave Him the authority to kick out the animal sellers and turn over the money changers tables. Jesus had made a conditional promise with these men. If they answered His question then He would answer theirs.

Of course they had been unwilling to answer His question on whether John the baptist was a prophet sent by God or just a man speaking the ideas, or thoughts of men. This was not because they didn't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Even these spiritually hardened men knew that John the baptist was a prophet sent by God. But affirming this to Jesus would have been too costly. It would have exposed them to the charge of disregarding what God, via John had said regarding Jesus. So because they refused to answer Him Jesus would not answer their question.

Instead Jesus would use this as an opportunity to instruct these men through the use of a parable. Parables as I said last week were a popular literary device in the ancient world and did not originate with Jesus. However with that being said the Lord Jesus did use parables in a masterful way. On this occasion His parable enabled Him to directly challenge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on their behaviour in a non direct way. The parable allowed Him to reveal a stunning truth about them in a way that could only really be understood by those who were spiritually attuned. Today we refer to the parable He used as the "Parable of the wicked vine-dressers," or the "Parable of the wicked

tenants." Let's remind ourselves of the parable now.

The parable concerns a certain man. This man desires is to create or establish his own vineyard. As I said last time Israel has the perfect climate for growing grapes. However to establish a vineyard takes time and money. The man therefore clears some land and plants his vines. He then surrounds the property with a protective hedge, builds a wine vat and finally a watch tower. Simply put the man has done all that would be necessary to make this a prosperous and successful vineyard. Once this is complete the man looks for some tenant farmers. These tenant farmers will care for the grapes on behalf of the land-owner and at harvest time send him some of the produce. With this all settled the man leaves for a long time.

We skip ahead now to vintage or harvest time. There is a nice bountiful crop of grapes. The land owner rightfully wants his share. So he sends a servant to collect what is due. The wicked tenants do not want to give the man his share. They beat the servant and send him away. The man sends more servants. The next is stoned and the one after is killed. Still the man persists in sending more servants to collect what he is owed. Finally, when nothing has worked he decides to send his only beloved son. Surely these wicked men will recognise that this is the land-owners son and show him some respect. However when the tenants see the son they scheme together. If they kill the son maybe they can inherit the land. Therefore they kill the son and throw his body out of the vineyard.

The parable concludes with Jesus challenging His listeners as to what the land owner will do to these wicked tenants. Surely he will come and destroy these wicked men and take away the vineyard away from them. He will then give it to some other tenants who will respect his authority and give him what is rightfully his.

As you know parables are vehicles that carry a much deeper spiritual meaning. So let us briefly look at the meaning of this parable. The man, the land-owner in the parable is God. The vineyard represents the nation of Israel. God in His divine wisdom chose Israel and set is aside as being special. He cleared the land and provided His protection. The vine-dressers, the tenant farmers are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people. Their task was to be faithful in looking after and caring for God's people. One of the many ways in which God cared for His people was in sending them prophets. They are represented by the servants in the story. The prophets were sent to speak directly for God, and typically imparted harsh, but necessary rebukes to get the people back on track. For this reason the prophets just like the servants in the story were badly treated. Some were beaten or abused, others were horribly killed. Finally God sent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He is represented by the son in the parable. We know how the Lord Jesus was treated. Humiliated, abused and then crucified.

How did God react? Well He took away His protection for the land and His people. Israel fell, the Jewish leaders and the temple system vanished. God chose to work through the church and predominantly through the agency of Gentiles.

The delegation of chief priests, scribes, and elders knew that this parable was aimed directly at them. They were furious but they knew that Jesus had the common people on His side. Therefore they left and went away to scheme. What they wanted was a way to get Him to say something controversial so that they could arrest Him. We will examine their first attempt in a moment.

오늘의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주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 예수님께서 대제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대표자들에게 주신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 성전에서 그분에게 다기왔습니다. 특히 그들은 누가 동물 장수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을 미끄러그리 그리 그리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조건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질문에 답한다면 그분도 그들의 질문에 답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니면 단지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분의 질

문에 대답하기를 까라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강퍅한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 확인하는 것은 차라야 할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대답하기를 거잘하였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께서는 비유로 이 사람들을 가르차실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비유는 고대 세계에서 날리 사용된 문학적 표현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비유를 능숙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에 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도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그분은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들만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를 "약한 포도원지기의 비유", 혹은 "약한 소작인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비유를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자기 포도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스라 일은 포도 재배에 완벽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을 세우는 데에는 사긴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는 땅을 개긴하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보호용 울타리로 포도원을 둘러싸고, 포도주 통을 짓고, 마지막으로 감사탑을 세웁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사람은 이 포도원이 반성하고 성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그 포도원 주인은 소작농을 찾습니다. 이 소작인들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포도원을 관리하고 수확기가되면 그에게 농산물의 일부를 보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자 그 남자는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수획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포도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자신의 몫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이 받아야할 것을 거두러 종을 보냅니다. 약한 소작인들은 그 사람에게 그의 몫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하인을 때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더 많은 하인을 보냅니다. 다음 사람은 돌로 맞고 그 다음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빚진 것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외이들을 보냅니다. 이 약한 사람들도 이 사람이 주인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존경심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고 음모를 꾸밉니다. 만일 아들을 죽이면 땅을 자기들이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그의 사체를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땅주인이 이 약한 소작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기라고 예수께서 질문하면서 비유가 끝납니다. 그가 반드시 와서 이 약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 가겠죠. 그런 다음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정당하게 그의 소유를 돌려줄 다른 세압자에게 그것을 내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비유는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땅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산성한 자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분은 땅을 개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소작인은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산살하게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 속의 하인들로 대표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직접 말하도록 보내을 받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 기획하지만 필요한 책망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지자들도 이야기에 나오는 종들처럼 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구타당하게 마다되고 있으라는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비유에서 아들로 대표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않니다. 굴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분은 그 나라와 백성에 대한 보호를 거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유대 지도 지들과 성전 제도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교호를 통해, 주로 이방인을 통해 알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대표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화

<u>Mark 54 – Sermon Notes</u> <u>Page 4</u>

가 났지만 군중들이 예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 음모를 꾸미러 갔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논란의 여자가 있는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첫 번째 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3 Then they sent to Him some of the Pharisees and the Herodians, to catch Him in His words.

Mark picks up the story some time after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had left Jesus and gone away to scheme. They are seeking a way to trap or ensnare Jesus in His words. The Greek word used here for "catch" is *agreuo*. It is most commonly used in reference to hunting, or trying to catch an animal. Hunters in the ancient world often set traps in order to capture their prey. So these wicked men are laying a trap, or a snare for Jesus. They want to coax Him into saying something that either angers the people and turns them against Him, or against the religious or civil authorities so that He can be arrested. To this end they have got together and selected a very controversial topic on which to quiz, and hopefully ensnare Him.

However before we look at the dilemma they pose to Jesus I need to say something about the two groups mentioned here. We have an interesting expression in English that was first coined by William Shakespeare. We use it to describe the situation when two people, or two groups who are very different in nature or character work together. We call them "strange bedfellows." Literally it means that it is strange to find these two people in bed together. The Pharisees and the Herodians were very strange bedfellows. They were two groups that you would never imagine working or cooperating together. Let me explain why.

As you know at the time of Jesus there were a number of powerful groups or sects in Jewish society. We have the Pharisees, the Sadducees and the Herodians. In different ways these groups held positions of authority and power over the people. The Pharisees held religious power. The Herodians held political power. They were a political party that as their name suggests supported King Herod Antipas. He was the Roman controlled puppet ruler over much of the land of the Jews from 4 BC to 39 AD. The Herodians favoured submitting to the rule of Herod, and therefore to Rome. They took this position because they believed in doing so it gave them some degree of power over the land. We see this kind of compromise whenever a nation is occupied by an invading force. There are always some people who side with the occupiers in order to accrue some benefit.

However to proud and independently minded Jews, like the Pharisees submitting to either Rome or Herod was unthinkable. The Pharisees sought Jewish independence and of course hated paying taxes to their Roman oppressors. To make matters even worse Herod wasn't even a Jew, he was an Idumean. This was just one more good reason to reject him and all he represented.

So these two sects had very differing views. The Pharisees were focused on the Law of God, the Herodians on the law of Rome. The Pharisees were intensely religious, the Herodians intensely political. The Pharisees main focus was Israel, the Herodians main focus was Rome. Strange bedfellows indeed. So what was it that brought these two polar opposite groups together? That's simple, their shared intense hatred for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13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라새파 사람들과 해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제시하는 달레마를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 언급된 두 그룹에 대해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처음으로 만든 흥미로운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이나 개성이 매우 다른 두 사람 또는 두 그룹이 함께 알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상한 동료 strange bedfellows" 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 두 사람이 함께 참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바라새인과 헤롯당은 매우 '이상한 동료' 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알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두 그룹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강력한 세력이나 종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라새인 ㅁㅁㅁㅁ, 헤롯당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 그룹은 사람들에 대한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바라새인들은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헤롯당은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롯 안타파스 왕을 자지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4 년부터 서기 39 년까지 유대인 땅 대부분을 다스라던 로마의 통제를 받는 꼭두 각시 통치자였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의 통치, 즉 로마에 복종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입장을 취했습니다. 침략군이 국가를 점령할 때마다 이런 종류의 타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침략자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지부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로마나 혜롯에게 복중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독립을 추구했으며 로마 업제자들에게 세금 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혜론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두매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와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거부할 또하나의 타당한 이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파는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라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혜롯당은 로마의 법을 중시했습니다. 바라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고, 혜롯당은 매우 정치적이었습니다. 바라새인의 주된 초점은 이스라엘이 었고, 혜롯당의 주된 초점은 로마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동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정반대의 그룹을 하나로 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 구세주이신 예수 그라스도에 대해 극심한 증오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14 When they had come, they said to Him, "Teacher, we know that You are true, and care about no one; for You do not regard the person of men, but teach the way of God in truth. Is it lawful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How best to approach and set up the Lord Jesus? The Pharisees and the Herodians adopt an approach of fawning flattery. This was a fairly common approach in the ancient world. Seek to lull your opponent into thinking you were sympathetic to their world-view before you attacked. So their words here are not sincere.

The four insincere compliments they say to Jesus stress, in order, Jesus's <u>integrity</u> (He is **true**). The Lord Jesus only ever spoke the truth. His <u>fairness</u> (**cares about no one**). Actually this is a a rather misleading translation. We might read it and think it meant that Jesus was callous or uncaring for the needs of others. This is of course not true. I think it is better to translate what is meant here as being, "that Jesus was not swayed by the opinion of others." Politicians today bend whichever way public opinion goes. The Lord Jesus was not like this. He was always a man of His convictions. He was a man of <u>impartiality</u> (**do not regard the person of men**). This means that Jesus was never influenced in what He said by the rank, wealth, status or position of the person to whom He spoke. He delivered the same message to all regardless of who they were. Finally they noted Jesus' <u>truthfulness</u> (**teach the way of God in truth**). John Gill in his commentary sums this up best, he writes;

"Jesus instructed men in the word, will, and worship of God, with all integrity and faithfulness."

Before moving on we ought to note the irony of what this delegation of Pharisees and Herodians say here. These men think they are merely speaking flattering false words. They do not think they are making an accurate statement of fact. This however is exactly what they are doing. Everything they are saying is true.

14 물어 보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시림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기이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이야 합니까?"

주 예수님께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라새인과 헤롯당은 이참하면서 접근합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미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생각하게 전에 당신이 상대방의 세계관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들의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네가지 진실하지 못한 창찬은 순서대로 예수님의 온전하심 integrity (그분은 **참되시다**)을 강조합니다. 주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u>공평 합니다</u> (fairness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는다**). □ 실 이 구절은 다소 오해의 소자가 있는 번역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냉담하거나 무관심하셨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가서의 의미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으셨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여론의 향방에 따라 변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정합니다 (impartiality □□□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의 자위나 부, 신분 등이 예수님께 결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자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의 진실하삼 (truth fulness 하나님의 길을 잔리로 기르차신다)에 주목했습니다. John Gill 은 자신의 논평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요약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경배를 가르치셨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의 대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아이러니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단지 아첨하려고 거짓으로 지어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Let us turn now to look at what they are asking the Lord Jesus. Their question regards whether it is morally right to pay tax to Caesar (the Romans). Is it lawful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Let me give you a little background here.

Since Judea had become a Roman province in 6 AD the Romans had required the Jews to pay a yearly "poll tax." This was a tax that had to be paid by every man aged between 12 to 65 and every women aged between 14 to 65 living in Judea. The tax amounted to one denarius, the equivalent to a day's wage for a working man. As you can imagine this was a very unpopular tax. There never is a popular tax I suppose! The Zealots refused to pay claiming that to do so acknowledged Rome's right to rule over them. The Pharisees strongly objected to the tax, but reluctantly paid it. The Herodians, who as we have seen were pro-Rome willingly paid the tax.

Actually as a Galilean this was not really an issue for Jesus, only Judea was a province under direct Roman rule. Therefore only Judeans were subject to the tax. However the tax was a hotly debated issue amongst the Jews, and one that was guaranteed to annoy or anger someone. So in truth what the Pharisees and Herodians are attempting to do is impale the Lord Jesus on the **horns of a dilemma**. We use this expression to indicate a problem in which however we answer we find

ourselves in trouble.

If He says that it is right to pay the tax the common people would be angry with Him. He would lose their popular support. In their eyes the true Messiah would never sanction foreign rule over Israel. After all to say it was right to pay the Roman occupiers of the land is to deny the sovereignty of God over Israel.

However to say that it was not right to pay was equally problematic. This is the answer they probably expected. It was the answer the everyday person would have given. They were forced to pay an unpopular, and in their eyes unfair tax to their oppressors. But we all know the consequences for not paying the government the taxes they demand. They are never pleased when citizens refuse to pay up. So to say it was wrong to pay would be to openly declare Himself as an enemy of Rome. He would then be treated like an insurgent or revolutionary. The Herodians would run straight back to Herod to tell him, or better yet to the Roman governor Pontius Pilate. There was no way the Romans would accept a prominent teacher going around telling people it was not right to pay the poll tax. They would react swiftly and brutally.

There is actually precedent for this. Back in 6 AD there was another Galilean man named Judas. This event is briefly mentioned in the book of Acts (Acts 5:37). According to Josephus, Judas led an insurrection against the Roman occupation of Israel. The catalyst for the uprising was Rome's demand for a census. This was required so that they could accurately apply the poll tax. How did this insurrection end? You probably won't be surprised to learn that Judas and all his followers were killed.

So it is a seemingly impossible question to answer. Let's read on and discover how Jesus handles it.

이제 그들이 주 예수께 무엇을 묻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가이시(로미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관한 것입니다. **가이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니면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께는 실제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다 지방만이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아스라엘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으며 누군기를 불쾌하게 또는 분노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바라새인과 헤롯당은 예수님을 **달레마의 뿔**에 박으려는 것입니다(진토양년에 빠지게하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대중들은 그분에게 분노할 것입니다. 그는 대중의 자자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참 메시이라면 결코 외국의 이스라엘 통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ㅁㅁㅁㅁㅁㅁ 로마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것이었을

<u>Mark 54 – Sermon Notes</u> <u>Page 8</u>

실제로 이에 대한 선례가 있습니다. AD 6 년에 유다라는 갈릴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행 5:37)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다는 코마의 이스리엘 점령에 맞서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봉기를 촉발한 것은 로마가 인구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인두세를 정확하게 부고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이 반란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놀랄 일도 아니지만 유다와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대답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아봅시다.

15 Shall we pay, or shall we not pay?" But He, knowing their hypocrisy, said to them, "Why do you test Me? Bring Me a denarius that I may see it." 16 So they brought it. And He said to them, "Whose image and inscription is this?" They said to Him, "Caesar's."

We can probably picture the smug faces of the Pharisees and the Herodians as they think they have ensnared the Lord Jesus. We've got Him now! He won't be able to wriggle His way out of this.

However they haven't fooled Jesus. He sees straight through their trap. As I have spoken about before the word hypocrite derives from the Greek word for an actor, or someone who plays a role. An actor on stage pretends to be someone else. On the Greek stage they typically did this by wearing a mask. In this instance these men challenging Jesus were pretending to be genuine truth seekers. But the Lord Jesus saw right through their disguise. Their masks could not conceal who they really were. He challenges them by asking them to bring him a denarius.

Now in order to really comprehend what is going on here we have to appreciate how money was understood in the ancient world. There were three important principles.

15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16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기아시의 것이나" 하고 대답하자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을 덫에 삐뜨렸다고 잘난 착하는 바라새인과 헤롯당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를 잡았어! 그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함정을 똑바로 꿰뚫어 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선자리는 단어는 배우나 연극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는 다른 사람인 착합니다. 그리스 무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예수께 도전한 이 사람들은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는 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가면은 그들의 실체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데나라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여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대 세계에서 돈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1 Firstly coins were a sign of power. The first thing a conquering force did was issue coins with their leader or monarch on them. Maimonides (a medieval Jewish philosopher) said, "Wheresoever

Mark 54 – Sermon Notes Page 9

the money of any king is current, there the inhabitants acknowledge that king for their lord." Coins then served to remind people who was in charge.

- 2 Secondly coins indicated where a ruler's power lay. A ruler's area of control or dominance was determined by where their coins were valid currency. The same thing holds true today. I cannot go shopping in Korea with my British pounds.
- 3 Thirdly coins were in some sense the rulers personal property. Because a coin had the king's head and inscription on it, it was held to be his personal property.
- 1 첫째로 동전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복군이 기장 먼저 한 일은 지도자나 왕이 새겨진 동전을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모니데스(중세 유대인 철학자)는 "어떤 왕의 돈이 통용되는 곳이면 그곳 주민들은 그 왕을 그들의 주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은 주인이 누구인지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 3 셋째, 동전은 어떤 의미에서 통치자의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동전에는 왕의 초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왕의 개인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Let us now consider the coin mentioned here by Mark. A denarius was a Roman silver coin bearing the bust of Tiberius Caesar (Caesar from 14-37 AD) on one side. Around the edge of the coin in abbreviated Latin was the inscription;

Tiberius Caesar Divi Augusti Filius Augustus

("Tiberius Caesar Augustus, Son of the Divine Augustus").

On the reverse side of the coin was an image of Tiberius's mother Livia along with the inscription, Pontifex Maximus

("High Priest").

The images contained on the coins, and more importantly the inscriptions were blasphemous and deeply offensive to the Jews. But, and this is important. The Jews were conducting business and trading using coins minted in Rome. They could have rejected the coins and refused to use them as currency. They however had not. So when Jesus asks them whose image and inscription they see they identify it as being Casears and in doing so they acknowledge his political power in Palestine. Let us see how this episode concludes.

이제 여기서 마기가 언급한 동전을 실펴보겠습니다. 데니리온은 한 면에 티베리우스 가이시(주후 14-37년의 카이사 로)의 흉상이 새겨진 로마 은회였습니다.

동전 가장되에는 라틴어로 다음과 같은 축약된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E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동전 뒷면에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리비아의 모습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폰트텍스 막니무스 ("대제사장").

동전에 담긴 이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거기에 새겨진 글은 신성모독이었고 유대인들을 대단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미에서 주조된 동전을 사용하여 사업과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전을 거부하고 화폐로 사용하지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의 형상과 글을 보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이 가아사임을 밝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팔레스타인에서 가아사의 정치적 권력을 안정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 And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Render 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And they marveled at Him.

We come now to the Lord Jesus' masterful answer to their query. He very neatly evades the horns of their dilemma by providing a deliberately ambiguous and provocative response. Let me try and explain what He means here.

My personal opinion is that big government is always a bad thing. The bigger a government gets, and the more power and control it has over our lives the worse a society becomes. But it seems around the world the general trend is for governments to get bigger and take on more responsibilities. It seems for obvious reasons that the trend is for governments to run our lives. However with this being said if we live in a state and utilise government services then it is right to pay for them. If for example we use the public library, the education system or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t's only right that we pay for them.

In essence this is what Jesus is saying in the first part of His response to the dilemma raised. You, He tells His hearers are liv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Roman empire. You are content to allow Roman soldiers to maintain the peace. You are happy to be able to trade across the Roman empire. You benefit greatly from the Roman built aqueduct that is bringing in fresh water into the city. You appreciate the bridges theybuilt that make travel easier. Therefore, for all these reasons pay what is due to Rome. Since you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of governmental rule then submit to government and pay your taxes (Rom 13:1-7). But of course Jesus' response doesn't end there.

He acknowledges that it is right and proper that we pay our taxes to the government. But it is even more important that we give to God the things that are His.

The coin that Jesus used bore the image of Caesar. But as human beings we bear the image of the all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Caesar was a powerful man, but from where did his power derive? His power and authority came from God. He lived under God's dominion. God gave him his position, and equally God could choose to take it away. Therefore Jesys tells us that we are to respect and live under the human authority that God has set in place, whilst also understanding that He is in ultimate control. We are to give our leaders respect and obedience but even more so we are to respect, love, honour and obey the one who is sovereign over all.

Some see a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God, or church and state. But there really is no dilemma. Relationship to government is part of relationship to God. We are to submit to those in charge of us until the point that the government attempts to claim the prerogatives and rights that belong only to God. So for example in the Roman world when the state claimed that the emperor was a god and should be worshipped. Then as followers of Christ we are duty bound to obey God before the State.

Or today if we lived in a place where the government banned Christians from assembling for worship. Then we would disobey the government in order to obey God's call for us to gather for

worship.

The incident concludes with the Pharisees and Heoridans being amazed at His answer. It really is the perfect response. He had avoided the trap they had set for Him, and in doing so given a profound though simple answer to their question. What argument could you bring against it. None.

After having been badly beaten on this occasion we might expect the Jewish leaders to slink away into the shadows. They should have recognised that in Jesus they had met their match. But as we shall see next time they will come again to try and trip Him up.

17 예수님이 "기이시의 것은 기이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 버렸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주 예수님의 대답은 탁월하셨습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모호하고 도발적인 대답을 함으로써 달레 미의 뿔을 매우 깔끔하게 피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는 개인적으로 권력이 방대한 정부(미 디디)는 항상 나쁘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이 커질수록 사회는 더욱 약회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책임을 맡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삶을 점점 더 주도해가는 추세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에서 살고있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공 도서관, 교육 시스템, 대중 교통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옳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의 처음 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로마 제국의 권위 이래 살고 있다. 너희는 로마 군인들이 평화를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 또한 너희는 로마제국 전역에서 무역을 할 수 있어 좋고 도시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로마식 수로로 인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준 다리 덕분에 여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좋아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로마에 정당한 세금을 자불해야 한다. 정부 통치의 혜택을 누렸으니 정부에 순종하고 세금을 내이한다(롬 13:1-7). 그러나 물론 예수님의 반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

예수께서 사용하신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주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의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 이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지위를 주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주신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권위 이래서 살이야 하며, 동시에 그분이 궁극적인 통차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존중하고, ㅁㅁㅁㅁ,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와 하나님, 교회와 국가가 갈등 관계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달레마는 없습니다. 우리와 정부와 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부입니다. 정부가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과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세계에서 국가가 황제는 신이고 그를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Mark 54 – Sermon Notes

또는 오늘날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금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모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정부에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Page 12

오늘 본문의 시전은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사람들이 그분의 대답에 놀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완벽한 대응입니다. 그분을 잡으려고 쳐 놓은 함정을 피하신 동시에 그들의 질문에 심오하면서도 간단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에 대해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 심하게 당한 유대 지도자들이 슬그머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다시 와서 그분을 넘어뜨 리려고 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오늘이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 Submission to government is part of submission to God

We have a saying in English that in order to avoid confrontation with other people it is best not to speak about <u>politics</u> and <u>religion</u>. They are subjects bound to get people's passions aroused. People do not tend to get excited by talk about the weather, or a local sports team. But bring up politics or religion and things can get fiery quickly. I very rarely speak about politics or political issues from the pulpit. I don't know how you vote and where you fit along the political spectrum. You may be to the right or left. You may think this particular government is great, and doing a good job. Or you may think the president is terrible and be greatl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general election. Whatever the case when it comes to our role and place in society the bible is clear. We are to live in submission to those God has placed in charge. This is because it is God who has put this leader or government in place (Rom 13). It also means that rulers are serving God in their political office. So if we disobey or act in rebellious ways then we are actually rebelling against God. This of course does not mean that we cannot denounce evil things like unfair laws, or corruption. As Christians, we should call out our leaders for making bad decisions and ruling poorly. This should always be done in a respectful way.

However if we want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God and live in a way that pleases Him we are to submit as He asks. As I noted during the sermon this submission only extends up until the point that a government commands or compels us to act in direct violation of God's laws and commands. At this point then we are to obey God and not the government. So let us remember what God expects. Let us live in submission to those God has put in positions of authority.

1 정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다. 이 지도자나 정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롬 13 장). 이는 또한 통치자들이 정치적 직위를 통해 하느님을 섬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반역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시실상 하 미묘미 모모고 모르는 그렇다고 해서 불공정한 법률이나 부패 등 약한 행위를 고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나쁜 결정을 내리고 잘못 통치한 것에 대해 지적해야 합니다. 이는 항상 정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증해야 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순종은 정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지점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며 실어가도록 합시다.

2 We all carry God's image

We saw in today's passage the Lord Jesus take a coin and show it to His audience. He asked them to identify whose image and inscription were on the coin. They rightly identified it as being the Caesar, in this case the emperor Tiberius. This was of course because they were in a region that was part of the Roman empire. Rome had power and authority over this region. This gave them the right to issue coins and demand payment for the services they provided. The coin bore Caesar's image on it and because of this it belonged to him.

As humans, we all carry the image of God. We were created in His image (Gen 1:26-27). Therefore we must give to God what is rightfully His. This of course means our entire lives. We are not to hold anything back. Certainly we have a duty to the government in the nation in which we reside, but we have an even greater duty to our God. He after all created us, protects, provides for and most importantly redeemed us. We are therefore called to live, act and speak in a way that demonstrates to those observing whose authority we live under. As we are told in 1st Corinthians 10:31,

Therefore,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Knowing that we bear God's image, and that we are His representatives in this world is a serious thing to contemplate. So often we live in a way that does not reflect God's image well. We are greedy, petty, vindictive and mean. When people look at us they would struggle to recognise us people made in the image of God. So let us reflect carefully on the fact that we are made in God's image. Let us try to better reflect His image to the world around us. May we never forget whose image we carry.

2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다가 청중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동전에 누구의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가이시(이 경우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임을 올바르게 식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로마제국의 일부였던 지역에 살고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지역에 대한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동전을 발행하고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동전에는 가이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이시의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창 1:26-27).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것 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권위 아래 살고 있는지 자켜보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살고, 행동하고,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 장 31 절에서 말했듯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